

문화예술 창조활동과 젠더

- 일 시 : 2005. 7. 14(목) 13:00 ~ 17:00
- 장 소 :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 주 최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관광부

『문화예술 창조활동과 젠더』 프로그램

■ 개회식

사회 : 홍기원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13:00 ~ 13:30 **개회사 및 인사말** 이영옥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

13:30 ~ 14:00 **축사** 이경숙 / 국회의원

■ 주제발표와 토론

사회 : 한경구 /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14:00 ~ 14:20 **주제 I: 여성문화예술창조활동의 실태와 정책지원**

류정아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14:20 ~ 14:40 **주제 II: 한국에서 여성예술가로 살아가기**

변영주 / 영화감독

14:40 ~ 15:00 **주제 III: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이춘아 /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15:00 ~ 15:20 **휴식**

15:20 ~ 17:00 **토론: 창조적인 여성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모색**

토론주제 I: 여성문화예술활동과 문화정책

토론 1: 김성일 /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

“문화관광부의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과 향후계획”

토론 2: 전효관 /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문화에 대한 통념을 여성으로 넘어서기”

토론주제 II: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비교

토론 3: 노명우 / 미디어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여건의 차이 :

여성에 대한 지원 과연 필요한가?”

토론 4: 엄태석 /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여성과 문화의 정치세력화”

토론주제 III: 여성문화예술활동의 특성과 사회적 위상

토론 5: 김현숙 / 이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여성문화정책에서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

토론 6: 변재란 / 순천향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몇가지 견해와 제언”

토론 7: 이해경 /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여성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창조활동의 장애를 가지는가?”

17:00

폐회

목 차

▣ 주제 발표

- I.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와 정책지원 3
- II. 한국에서 여성예술가로 살아가기 37
- III.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39

▣ 토 론 : 창조적인 여성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모색

토론주제 I: 여성문화예술활동과 문화정책

- 1. 문화관광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 59
- 2. 문화에 대한 통념을 여성으로 넘어서기 63

토론주제 II: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비교

- 1.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여건의 차이:
 여성에 대한 지원 과연 필요한가?” 67
- 2. “여성과 문화의 정치세력화” 69

토론주제 III: 여성문화예술활동의 특성과 사회적 위상

- 1. “여성문화정책에서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 75
- 2.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몇가지 견해와 제언 79

주제발표

I.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와 정책지원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II. 한국에서 여성예술가로 살아가기
변 영 주 (영화감독)

III.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이 춘 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와 정책지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최근까지도 여성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사적이고 가족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가사와 출산 그리고 육아 이외의 부분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사회적 차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교육수준의 증대, 정치적 영향력의 획득 등과 더불어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은 여성 스스로 사회적 존재성을 인식하면서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적 여건의 상황변화에 기인하기도 한 것이다. 2000년도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65.5%로 남성이 70.3%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남성대비 여성의 근로시간은 97.6%에 해당할 정도로(1999년 통계)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과 거의 비슷하다. 호주제도 폐지법안이 통과되어 여성은 개인적 삶을 옥죄던 전통적인 가족규범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으며,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의 가치를 상징하는 “핑크칼라”의 중요성이 근로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에의 욕구 또한 증진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여성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판단할 수는 없게 되었다. 여성의 역할과 욕구는 그것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나 맥락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구의 종류와 특성 등에 따라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회나 국가는 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표현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제약받지 않게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여성의 다양한 욕구 중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욕구와 관련해서,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능력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현 상황에 대해서 여성들은 어떤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글의 구성은 우선 한국 여성의 사회·문화·경제적 위상을 남성과 비교해서 살

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여성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단지 문화예술 분야에만 한정된 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종합적인 여성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예술활동은 여성이 처해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광의적 문화라는 토대에 근거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토대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II.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사회적 토대

1.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상과 지위인식 정도¹⁾

뒤 부분의 여성문화예술활동의 실태에서 자세히 분석될 것이지만,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지 문화예술활동이 가지는 특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여성이 살아가는데 근거로 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것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위상을 개괄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02년 가사분담 실태는 '부인이 주도'가 88.9%, '공평하게 분담'이 8.1%, 남편이 주도가 3.0%이다. 그러나 2002년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로 여성은 '부인이 주도'가 61.3%, '공평하게 분담'이 35.9%, 남성은 '부인이 주도'가 70.8%, '공평하게 분담'이 25.2%로 나타났다. '남편이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는 남성이 3.9%로 오히려 여성의 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직업여부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성차별 정도에 대한 남녀의 인식에서, 2002년 여성은 사회생활에서 72.4%, 직장 69.1%, 가정 40.9%, 학교생활에서 32.9%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사회생활에서 66.8%, 직장 65.2%, 가정 35.0%, 학교생활에서 29.5%가 성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이 보다 더 성차별 인식 정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의 문화와 여가생활과 관련해서, 2000년 15세 이상 여성의 여가활용방법은 TV시청 62.3% 가사잡일 49.4%, 휴식이나 수면 48.8%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TV시청(63.0%), 휴식수면(52.6%), 사교관련(33.3%) 순이었다. 특히 가사잡일의 경우는 남성은 16.6%로 여성의 1/3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며, 스포츠는 13.1%로 여성의 3.2%보다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사잡일을 하는 동안 남성은 스포츠를 하고

1) 여기서는 통계수치로 결과된 여성의 삶의 측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도 하자.(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4. 7)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여성의 생활시간 활용양태를 보면, 20세 이상 기혼여성의 96.8%는 매일 3시간 40분씩 가사를 하고 있으며, 93.0%는 2시간 정도를 음식준비 및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64.9%는 매일 1시간 23분씩 가사를 하고 있으며, 40.4%는 50분 정도를 음식준비 및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이중고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다섯째, 계열별 학위 취득자에서, 2003년 석사학위 취득자중 여성비율은 39.8%로 전년대비 2.9%p늘어났으며, 계열별로는 예체계 65.6%, 사범계 61.4%, 자연계 43.9% 등의 순이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여성비율은 23.7%이며, 계열별로는 사범계, 인문계, 자연계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계 학위 취득자의 여성 구성비는 200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예체능계와 사범계의 학위취득자는 여성이 월등히 많다.

여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을 보면,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로 2002년 49.7%에서 0.8%p 감소하였다.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 초반이 64.0%로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후반과 20대 초반으로 61.5%, 20대 후반 60.5%, 30대 후반 58.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왕성하게 자기계발을 해야 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여성들이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일곱째, 성별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2003년 여성취업자 중 고졸 41.0%, 대졸이상 24.8%, 초졸이하 20.6%, 중졸 13.6%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보다 고졸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을 통해서 현재 한국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질의 특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여덟째,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보면, 2003년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5.5%이며 이 중 상용은 23.2%, 임시는 31.0%, 일용은 11.4%이고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4.5%이며, 이 중 자영업주는 17.8%, 무급가족종사자는 16.7%이다. 2003년 남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4.7%이며 상용은 39.6%, 임시는 16.7%, 일용은 8.4%이다. 여성의 임시직 비율은 남성의 거의 두배로 나타났다.

아홉째,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은, 2002년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은 '육아부담' 38.8%,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22.8%, '불평등한 근로여건' 12.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육아부담은 30대가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20대로 42.2%, 50대 40.9%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부담과 30대의 낮은 취업률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

2.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 현황

1)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여건

본 장에서는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을 남성과 비교해서 살펴본 자료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상대적인 문화예술활동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문화예술인들의 취업상태에서 여성 예술인은 남성 예술인보다 임시고용직 종사자가 두 배 많으며,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표 1〉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취업상태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자영/고용주	자유전문직	정규고용직	임시고용직
남	1354	21.6	30.6	30.4	10.6
여	593	10.1	28.5	27.3	24.3

* 출처: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둘째, 교육관련 직종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구분해 보면 대학교수비율에서 현저히 낮고, 강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교육관련직종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대학교수	대학강사	정교사	준교사	학원강사	기타	무직/ 비교육직	계
남	1354	11.0	5.2	5.0	0.5	1.8	0.2	76.3	100.0
여	593	6.4	9.8	3.0	4.0	9.3	1.3	66.1	100.0

* 출처: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셋째, 월평균 예술 관련수입에서 고액으로 올라갈수록(200만원 이상) 남성이 두 배 정도로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수입이 없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두 배 가량 높다. 월평균 예술가 개인의 수입은 200만원 미만까지는 여성의 비율이 높으나 2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올라가면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특히 300만원 이상으로 가면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한다.

<표 3>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활동관련 수입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50 만원	51-100 만원	101-200 만원	201만원 ~	계
남	1354	32.3	13.7	3.5	8.4	11.2	11.3	19.6	100.0
여	593	27.7	13.7	5.4	8.6	12.8	21.1	10.8	100.0

* 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표 4> 문화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 월평균 예술가 개인의 수입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없다	100만원 이하	101-150 만원	151-200 만원	201-300 만원	301만원 이상	계
남	1354	5.2	15.8	7.4	12.4	22.8	36.4	100.0
여	593	8.8	27.3	15.5	19.4	14.3	14.7	100.0

* 출처 :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이로 미루어 볼 때, 예술활동을 통해 생겨나는 수입이나 안정된 직장의 여부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다 우월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외부적 규제활동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

<표 5>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외부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점

응답내용	사례수	매우 심하다	다소 심하다	그저 그렇다	거의 없다	전혀 없다	종합평가			계	평균
							심하다	보통	없다		
남	1354	3.1	16.1	21.3	48.6	10.9	19.2	21.3	59.5	100.0	(3.48)
여	593	3.0	19.2	28.8	36.8	12.1	22.3	28.8	48.9	100.0	(3.36)

* 출처 : 문화예술인실태조사 2003, p.308

2)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상황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예술활동의 양태나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여성은 연출이나 기획 등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의 총괄과 관련된 부분의 종사 비율이 낮았다. 특히 영화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6> 어떤 부문에서 활동하십니까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연기	기술 스태프	연출	제작 기획	극작	평론 이론	계
연극	남	144	49.3	18.1	18.1	9.0	4.2	1.4	100.0
	여	46	69.6	19.6	4.3	4.3	2.2	0.0	100.0

* 출처 : 응답대상자 : 예술인,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

<표 7> 어떤 부문에서 활동하십니까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기술 스태프	감독	시나 리오	제작 기획	연기	기타	계
영화	남	182	47.8	23.6	10.4	11.5	3.8	2.7	100.0
	여	11	9.1	9.1	72.7	0.0	9.1	0.0	100.0

* 출처 : 응답대상자 : 예술인,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둘째, 발표작품의 수에서 남성보다 발표비율이 낮았다.

<표 8> 데뷔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을 얼마나 발표 또는 출판하셨습니까

단위 : %

응답내용		사례수	발표작품	평론/논문		저서/역서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연극	남	144	100.0	10.4	89.6	13.2	86.8
	여	46	100.0	4.3	95.7	6.5	93.5

* 출처 : 응답대상자 : 예술인,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셋째, 발표 편수에서 사례가 많아질수록 여성의 발표 횟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창조활동을 하지 못할 한계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 9> 데뷔부터 지금(2003.6.30)까지 어떤 것을 얼마나 발표 또는 출판하셨습니까

단위 : %

		사례 수	1-9 편	10-19 편	20-29 편	30-39 편	40-49 편	50-59 편	60-69 편	70-79 편	80-89 편	90편 이상	계	전체 평균
연극	남	144	7.6	14.6	10.4	14.6	9.7	8.3	4.9	4.2	2.8	22.9	100.0	91.9
	여	46	28.3	15.2	10.9	17.4	6.5	2.2	4.3	2.2	2.2	10.9	100.0	54.3

* 출처 : 응답대상자 : 예술인, 2003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최근 여성은 여성 특유의 장점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복합적인 지위가 고려된 상황에서 여성 자신에게 고유한 사회·문화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권리의 획득에 이어서 문화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각종의 사회문화적 편견들의 복잡한 망 속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포함한 사회 저변에서부터의 문제해결 욕구가 사회적인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와 대전제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이 모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양성평등가치'가 지역·계층·세대간 평등가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진정한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요소가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이것은 창의성과 다양성 등에서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시각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세계적인 변화상을 적극 수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의 남성 지배구조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 속에 내재된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것의 해결은 그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구성원 각자의 문제의식과 모순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기본바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사회가 지나치게 복합적인 사회이든가 가치체계가 급변하는 사회인 경우에는 개개인들이 일상의 구조적 모순에 스스로 의문을 제기할 겨를도 없이 생존을 위한 경쟁논리 속에 매몰되기가 쉽다. 그 결과 사회문화적 모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지극히 부분적인 집단에 의해 간헐적으로 수행되어 사회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도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며, 사회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유용하면서도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사회진보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등장하게 된다.

말하자면 기존의 삶의 양식으로서의 여성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문화적 자질이 남성의 문화적 자질과 동일하게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과 육아,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문화적 의무는 여성의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서 여성들을 단순한 문화예술의 소비자로 전락하게 하여 문화예술창조인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을 여성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하는 작업이 기존의 문화정책 추진의 맥락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면서 시도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대단히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III. 한국여성의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

1. 실태조사 방법과 관점

1) 세부조사내용

여성문화예술 활동의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A4 용지 16장으로 이루어져 선택형과 기술식의 혼합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문화예술 활동 영역, 문화예술 활동 여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매체/정보활용실태, 교육환경 및 만족도,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실태나 장애요인,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다.

구분	조사 세부내용	
문화예술활동영역	공통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분야 ○ 활동분야별 활동 비율 ○ 활동분야별 활동 기간 ○ 주요 활동영역(장르) ○ 최근 3년내 지원금 수혜경험여부 및 지원액 ○ 가입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수
	창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뷔방법 ○ 데뷔이후 작품수/리뷰건수/최근 3년 리뷰 건수
	기획/제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활동영역 ○ 소속기관 유형 ○ 전문적인 활동시작 계기 ○ 인턴십 경험 및 기간 ○ 기획 작품 총건수/최근 3년 건수/리뷰건수
	강의/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 계기 ○ 강의하는 대학 및 대학원 유형 ○ 학기당 강의 과목 및 강의 시간 ○ 문화예술활동으로서의 강의의 개념인식
	현장스텝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활동 현장스텝 분야 ○ 활동계기 ○ 소속기관 유형 ○ 인턴십 경험 및 기간 ○ 참여 작품 총건수/리뷰건수 ○ 최근 3년 참여작품 건수/최근 3년 리뷰 건수
	잠재활동가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 학교급 ○ 문화예술계 종사의사 수준 ○ 종사 희망분야 ○ 기대하는 데뷔방법 ○ 데뷔시 장애요인 인식

<p>문화예술활동 여건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인식 및 활동환경 평가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정도 평가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
<p>문화예술활동 을 위한 매체/정보활용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등 디지털 매체 활용정도 ○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작품 발표 여부 ○ 홈페이지/블로그 보유 여부 ○ 인터넷 활용의 문화예술 활동 도움도 평가 ○ 문화예술 관련 정보 습득 경로 ○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지원 정보에 대한 관심도 ○ 국내 문화예술활동의 장애요인
<p>교육환경 및 만족도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경험 기관 및 교육 기간 ○ 교육기관 선택 기준 ○ 교육기관 선택시 영향 인물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만족도 ○ 문화예술교육별 창의력 증진 도움도
<p>여성문화활동 실태 및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성공의 조건 ○ 문화예술분야 활동시 장애 경험 ○ 성에 따른 이득 혹은 장애 경험여부 및 내용 ○ 성 차이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활동시 장애 유형 ○ 남성의 문화예술분야 활동시 수월성 요인 ○ 문화예술 활동시 남녀간 차이에 대한 인식 ○ 여성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 여성 문화예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 성의식에 대한 의견
<p>응답자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문화예술 활동 이외의 직업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전공 · 최종학교 전공 ○ 최종학교 전공과 현재 활동영역의 일치여부 ○ 가족구성 · 결혼여부 · 자녀유무 및 보육자 ○ 문화예술 활동 가족여부 및 주요 활동지역 ○ 생활수준 ○ 소득수준(전체 및 문화예술 활동 구분) ○ 지출수준(전체 및 문화예술 활동 구분) 등

2) 조사설계

구분	구체적인 내용				
조사 대상	○ 문화예술분야 여성 종사자 및 잠재적 종사자				
문화예술분야의 구분	역할별 분류	① 창작활동(작품활동) ② 기획/제작 ③ 강의/연구 ④ 스텝 활동 ⑤ 학생 (잠재적 종사자)			
	영역(장르)별 분류	① 문학 ② 시각예술 - 미술·건축·사진 ③ 음악 ④ 공연예술 - 연극·무용 ⑤ 영화			
조사표본수	총 표본수	○ 2,000명			
	수준별 분류	종사자		잠재적 종사자	
		1,000명		1,000명	
	역할별 분류 (전문가 1,000)	창작활동	기획/제작	강의·연구	스텝
540명		190명	150명	120명	
장르별 분류 (전체 2,000)	문학	시각예술	음악	공연예술	영화
	420명	520명	420명	400명	240명
표본추출법	○ 유의할당 (Purposive Quota Sampling) ※ 유의할당 실시 이유 1) 조사표본수를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2003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비례할당하는 경우 특정분야에 집중 2) 장르별 분류는 단체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역할별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근무지 방문을 통한 대인면접 - 부분적으로 FAX조사/e-Survey 병행				

3) 조사대상

(1) 종사자 및 잠재적 종사자의 분류 기준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관련 협회, 학회, 단체 등에 가입한 학생이 아닌 사회인 ○ 관련산업 종사자중 조사대상 역할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조사대상 장르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 ○ 조사대상 장르에서 사회적으로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 ○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조사대상 장르/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잠재적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장르와 관련된 대학 및 대학원 학과에서 문화예술계로 진출을 목표로 수학하고 있는 학생 (대학원생 중심으로 조사) ○ 타 학과라 하더라도 조사대상 장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수학하고 있는 학생(ex: 타과에 다니면서 화가가 되기 위하여 화실, 문화센터 등에서 수학하는 사람 등) ○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조사대상 장르에서 인턴십, 단역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2) 역할별 분류 기준

창작활동	○ 조사대상 장르에서 창작활동(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기획 제작	○ 조사대상 장르에서 기획,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
강의연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대학교수, 교사, 시간강사) · 연구소 연구원 · 관련분야 평론가 ○ 강의센터/화실 등 공공 및 사설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강의/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
현장스텝	○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스텝분야

※ 단, 학생의 경우 역할별 분류가 어려우므로 장르별 분류를 기준으로 조사 실시

(3) 장르별 분류

문학, 시각예술, 음악예술, 공연예술, 영화 등 5개 장르에서 표본이 추출되었다.

2. 여성문화예술활동 실태 조사의 결과

첨부한 PPT 자료 참조 바람.

IV.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

1. 외국의 여성문화정책의 경향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차별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상되면서 여성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은 한층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여성운동의 성과가 집결된 UN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 채택)에서는 사회에서 자행되는 성차별 문제의 일부로서 문화적 분야에서의 여성차별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분야에서도 직접적 성차별 뿐 아니라 간접적 성차별(성차별의 의사가 없이 행해지는 행위의 결과로서 성차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결과적 차별이라고도 함)을 규제할 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문화적 기제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특성론, 성별역할분업의식 등이 확산, 재생산되는 것이야말로 여성차별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여성과 문화를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는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문화와 발전’의 새로운 자리매김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연관 깊다.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문화정책 세계회의에서 ‘멕시코시티 선언’²⁾을 채택하였다. 이후 유네스코는 1998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발을 위한 문화와 대중매체 정책에 대한 정부간 회의를 열어 정부의 공무원과 문화적 지도자 및 예술가, 지식인, 학자 그리고 대중매체 담당자들이 참가하여 인간개발의 구조 내에서 문화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 예술과 대중매체 그리고 문화보급에서 젠더의 관련성과 평등성의 문제에 대한 다섯 개의 주요한 원칙(‘평등’, ‘다양성’, ‘인식’, ‘투명성’, ‘생산성’)이 제시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의 증진 뿐 아니라 젠더 평등과 관련된 문화 대중매체 정책의 평가를 위한 안내와 지침서로서 사용되도록 권장되었다.

외국의 문화정책 속에 보이는 여성관련 문화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면³⁾, 정책기저에 ‘양성평등’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나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그 접근 방식이나 정책적 방향은 약간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각 국가별 여성문화정책의 원칙과 세부 중점 영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에서 “문화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그리고 한 사회나 사회적 그룹을 특징짓는 정서적 특성의 전반적인 혼합물”이며, “예술과 문학 뿐 아니라 삶의 방식과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¹⁾

3) 양애경, 2003; Council of Europe/ ERICarts, 2002. 참조.

〈표 10〉 각 국별 여성문화 정책의 원칙과 영역

국 가	여성문화정책의 원칙	세부 중점 영역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을 소수 민족, 이민자와 더불어 더 나은 보편적 조건을 성취하고자 애쓰는 ‘문화적 소수자’(Cultural Minorities)로 취급 ○ 문화분야 양성평등정책(gender equality policy)으로 예술과 미디어에서의 양성평등 ○ 정책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책과정 개혁(성주류화)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미디어, 광고 등의 여성 고용 상태 - 상위직 여성의 고용상태 - 여성예술가의 사회적 상황 -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소득수준 - 결정권자의 위치의 여성비율 증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과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활동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총체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연방정부 기구(Status of Women Canada : SWC)를 통한 여성과 문화 관련 활동 지원 ○ 캐나다의 문화발전과 문화유산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를 고양 ○ 캐나다 정체성에 대해 여성들의 진보적인 기여 인정 ○ Plan for Gender Equality, 1995-2000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여성 발굴 -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여성지원 - 예술영역에서의 여성참여 육성 -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지위 개선 - 공연예술영역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장애 및 고용 장벽 제거 - 문화적 정체성의 표명 및 문화적 차이를 보존 가능하도록 원주민 여성들 지원 - 모든 민간 방송국은 캐나다 방송심위원회에서 관장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성역할 묘사 규칙”을 고수해야 함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이 분포되어 있음 ○ 북경 여성회의 이후 핀란드 정부의 모든 정책은 성주류화(mainstreaming)라는 입장을 공식화 함 ○ 1995년 성평등법(Equality Act of 1995)을 제정한 데 이어, 1997년에는 평등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 함께 하는 삶(working life) - 의사결정 메커니즘 -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평의회(the arts councils)나 지역위원회(municipal board)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고수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고용상황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나 고용환경이 열악하다는 보고가 발표 ○ 기업환경과 고용환경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가치관 확대 ○ 대부분의 프랑스의 거대 기업들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으나 기업의 속성상 문화영역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분야 노동환경 변화 - 2001년 프랑스에서 문화예술영역의 여성노동력은 45% 정도였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많이 고용된 영역은 잡지출판, 소매업, 공연장 운영, 사서(정체 사서의 75%) 등으로, 신문편집, TV제작 및 방송, 건축, 언론사 등의 영역에서 2/3를 차지하는 남성의 경우와 비교되는 상황

국 가	여성문화정책의 원칙	세부 중점 영역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 문화관련 정부법안에서 문화정책은 “언어, 무대, 이미지, 소리 그리고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 더 나아가 이는 성인교육, 조직활동의 영역 내의 수단, 일상적인 삶과 문화유산 보존” 이라고 정의 ○ 구조와 규범의 투명성을 가정하는 양성평등을 향한 스웨덴 정부의 주요한 출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업예술과 예술가 정책 -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참여자로서의 시민 - 2000년 이후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문화영역에 여성책임자 수의 증가 - 예술지원위원회(The Arts Grants Committee)에서는 젠더관점에서 지원금지금을 분석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에 평등에 대한 논쟁 ○ 전문적인 활동영역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에 초점 ○ 적극적 우대조치(positive action) 자극 ○ 여성을 위한 비례대표제 ○ 1990년대에 이 논쟁은 여성에서부터 소수민족(여성과 남성을 포함)의 문제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공간을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조 유지 - 공연장, 뮤지엄, 기타 다른 공연장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조우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충분히 사용해야 함 - 문화기관, 기업, 자문기구, 기금운영기구 등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접근성을 향상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 기회 위원회(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는 네 개의 지방정부(영국,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를 대표하는 독립적인 법적 기구로, 각각의 정부가 성차별 제거 관련업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틀랜드 정부는 ‘평등전략’(Equality Strategy)이라는 이슈를 모든 스코틀랜드 정책입안의 핵심으로 삼음 - 여성과 문화에 관련하여 문화매체체육부(DCMS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서는 ‘공포가 없는 삶’(Living Without Fear)이라는 보고서 발간 - 여성, 폭력, 포르노에서의 DCMS의 역할을 언급

2. 한국의 여성문화예술 정책의 현황

현재 한국에서 여성문화정책의 발전단계는 대단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더군다나 여성이 가진 문화예술적 창조능력이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나 정책적 의무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않았다. <여성발전기본법>(1995),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1998)4),

4) 이때 문화분야에서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여성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추진계획으로, 여성예술단 창설지원, 여성문화예술인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여성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동호인 활동 지원, 각종 문화예술전문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문화제 개최지원, 여성과 친숙한 문화관련 인간문화재 분야 발굴 및 지정 등의 추진계획을 세워놓았다.

“제 2차 여성발전기본계획”(2003)⁵⁾ 등의 수립으로 여성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으나, 여성문화정책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 몇 가지 여성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그 구체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도 하다.

3.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과 전략

1) 문화예술계 전문 여성인력의 실태 파악

문화예술계의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은, 향후의 여성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영역의 성별통계작업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본 연구의 모(母)사업인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분석>은 이의 가장 첫 번째의 단계이고, 이와 더불어 남성과 여성이 비교가능한 실태조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영역이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분류틀에서 제외되었거나 또는 복합적인 새로운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도 새로이 개발된 범주로 포함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장르중심이 아닌 역할이나 기능별 범주에 따른 조사분석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2) 기획, 경영, 행정직 여성인력 양성

문화수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문화기획 및 경영전문직종에서 여성인력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의 증대,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의 수요증대로 다양한 차원의 문화기획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화기획

(양애경, 2003:xxiv-xxv)

5)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03-2007)에서는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그리고 성주류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각종 문화예술 실태조사 시 여성관련 평가요소 도입,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여성 역사인물 및 여성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다. 즉 “여성이 문화예술활동 소비자로서만이 아니라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영역에서 여성인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성들의 주도적 역할을 도모”¹⁾한다는 데서 ‘여성과 문화’에 관한 일견 진전된 형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애경, 2003:xxvi-xxvii)

및 문화예술경영직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인력개발센터 등과 같은 여성교육기관에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이 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가로서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예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과반수를 넘는 65%대에 이르고 있으나,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예술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사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로서 창조력을 발휘해야 할 나이에 가정에 묶이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현장에서 물러난 여성예술가가 다시 예술계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이러한 여성예술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문화적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창조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여성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여성예술가에 대한 기금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예술가에 대한 창작 및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 및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시 여성예술가에 대해 일정한 지원비율을 할당하여 목표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공공의 예술문화 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서 예술문화활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관심을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이것은 아마 추어 여성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초등교육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하게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예술향수계층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등의 정책효과를 내리라 본다.

4) 여성예술가의 작품발표 기회의 확대

앞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의 작품발표 기회는 남성보다 낮고, 이것에 대한 원인은 총체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에 상당한 정도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여성작품 발표에의 국가적 지원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성문화예술지원 정책사업으로는, '여성예술인 창작지원', '여성관련주제 창작공연 지원', '신진여성예술가 지원', '여성문화예술인 단기 연수 지원', '여성전용 예술공간 지원',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여성참여자 지원', '문화

예술국제교류 여성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지원',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여성주민 문화예술활동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여성예술가 교류 워크샵 지원' 등의 사업들이 다. 물론 이를 위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5) 국고와 기금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장기적 여성문화정책의 수립

기금, 특히 문예진흥기금의 활용은 융통성을 가지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기금에 의존할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소홀해질 위험이 있다. 직접적 지원정책 사업일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고, 보자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의 토대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고를 통한 정책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앞의 조사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연극의 발표 횟수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표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 그리고 영화인의 활동영역에서도 남녀의 활동영역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기술, 감독, 제작기획에는 남성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시나리오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정책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우세한 부분을 더 장려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부분에 여성우대 정책이나 장려 정책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효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나오는 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에서 여성과 관련된 예산의 총액이 전체 예산의 0.04~0.05%에 불과하다⁶⁾. 또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된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⁷⁾에서, 여성문화정책의 기초적인 토대구축과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21세기는 문화가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주요 수단으로 강력하게 부상할 것이라는 점

6) 기획예산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총 예산은 120조원이고 이 중 여성과 보육에 관련된 예산은 4500억원(이중 보육예산이 4000억원임)이었으며, 2005년 예산은 131조원이고 이 중 여성과 보육 관련 예산은 6600억원(이중 보육예산 약 61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 2005, [online available] www.mpb.go.kr/korean/kor_econo/K351/k35101.jsp)

7) 문화관광부 2004년 예산 중에서 여성관련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모두 16억 9천만 원인데, 이 중 여성문화정책과 관련된 것으로는 여성불자대회, 여성영화제지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체육관련 지원이었다. 그러나 전자의 두 개의 사업도 여성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성인지적 여성문화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뿐더러, 한국 사회는 곧 고령화 또는 초고령화 사회⁸⁾에 접어들어서 절대적 피부양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은 건전한 사회발전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대, 사회활동 비율과 영역의 확대, 사회활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날로 증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문화적 욕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문화정책, 즉 여성문화정책은 현재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비하는 필수 단계이다.

국내에서의 여성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시민들의 문화 복지 증진이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국가 내의 다양한 집단들, 특히 문화 소외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문화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향유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기본적인 충족요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시간과 더불어서 경제적 여유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는데 부가되는 일상적인 삶의 의무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의 정도 등이 모두 포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양희, 이춘아, 김이선,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4
- 김양희, 김홍숙, 김경희,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조정관실, 2000
- 김양희, 김이선, 문태훈, 남상민, 『지속가능하고 성인지적인 환경거버넌스의 기반 조성 연구』, 환경부, 2004
- 김옥희,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복지개발연구』 4-4, 1998
- 김재인,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1
- 김재인, "여성정책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포럼』 제1호, 2003
- 김재인, 정숙경,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8
- 김재인, 김성경, 권미수, 『여성정책 평가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2000
- 김태홍, 『우리나라의 남녀고용차별 의식 실태 조사』, 여성개발원, 2003

8)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가임여성 한 명당 1.1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한국은 65세 노인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화사회는 2019년에, 그리고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이혜훈, 2001; 통계청, 2003,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박동석 외, 2003에서 재인용).

- 남승희, "양성평등 가치관 정립을 위한 여성교육 정책", 『강원교육』 165, 2000
- 류정아, "여성문화와 삶의 질 끌어올리기", 『문화도시 문화복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류정아,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4
- 류정아,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2004
- 문유경, 『성인지적 통계자료 구축』, 여성특별위원회, 1999
- 문유경, 전기택, 『성 인지도 통계자료 생산방안 : 행정부문』, 여성부 정책개발평가담당관실, 2001
- 박동석 외,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2003,
- 박성정,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신용자, 김영신, 『주요 선진국의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노문사, 2000
- 양애경, "성 인지(性認知)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연구』 58, 2000
- 양애경,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양애경, 『여성문화정책의 방향과 실행과제 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 여성개발원, 여성백서, 2004
- 이승희, 『한국의 여성정치와 여성정책』, 여성연구논집 9, 1998
- 이은죽, 서승희, "한국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천과 여성정책", 『師大論叢』 제65집, 2002
- 이윤희, "21세기 여성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統一問題와國際關係』 9, 1998
- 장하진, "참여정부의 여성정책 중점과제", 『여성정책포럼』 제1호, 2003
- 전경옥,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치참여 관련 정책부문",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 2003
- 함인희, "성평등문화 진작을 위한 우선과제", 『여성』 380, 1999

한국에서 여성예술가로 살아가기

변영주 (영화감독)

그러니까, 충무로의 조그만 영화연구모임의 사무실에서 몇 명의 여성들이 함께 <바리터>라는 이름의 여성영화제작모임을 만든 때가 1989년이였다. 그때,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감독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은퇴한 몇몇의 여성감독들이 있었을 뿐이다.

내가 1995년 <낮은 목소리>를 만들어 극장에 개봉했을 때, 사람들은 자주 현재 활동하는 여성감독이 몇 명인지 나에게 질문을 했었고, 내가 열거할 수 있는 여성감독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금, 2005년 많은 여성들이 영화제작 현장에서, 제작자, 프로듀서, 감독, 시나리오작가, 미술감독, 편집기사, 촬영 및 조명, 그 외 다양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독립영화의 제작 현장까지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서울 여성영화제의 단편경선 프로그램에 출품되는 여성감독들의 단편영화를 살펴보면, 그 해 가장 주목받았거나 여성영화제 이후 주목받았던 영화들이 매 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여성문화예술기획등에서 주관하는 여성영상제작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영상제작에 관심을 갖는 여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단순한 성별로서의 여성 영화생산자의 증대이외에, 여성주의적 영상활동이 예전에 비해 더욱 증대되었다라고 하긴 힘들 것 같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바리터>라는 여성영상제작팀을 발전시키고 여러 제작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던것은 다름 아닌 여성민우회나 또하나의 모임같은 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민우회와 바리터가 공동으로 제작하였던 사무직 여성노동자에 관한 중편 영화인 <작은풀에도 이름있으니>는 여성민우회가 기존의 제작된 작품도 없었으며 독립영화진영에서 지명도도 없었던 바리터라는 제작팀을 애초에 신뢰하고 함께 하여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나에게 몇 개의 소품같은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의뢰했던 여성활동가가 없었다면, <낮은 목소리> 또한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면에서 서울여성영화제가 지속적으로 해오는 여성 다큐멘터리 사전제작 지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관객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즉, 서울 여성영화제를 통해 보여지는 다양한 여성주의적 작품들을 볼 때 마다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에게 그 작품들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면에서 현재 구민회관, 여성회관들의 공간을 90년대 대학의 공간처럼, 향시적인 상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향⁹⁾

이춘아 (유성문화원 사무국장)

여성,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창조자로

2002년도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하기 위해 문화부에서 시안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그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 '여성,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이를 퍼뜨리자는 것이었고,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왜 필요한지 모임도 가졌었다. 다행히 '문화생산자'라는 단어가 기본계획에 통용되어 사용되면서 여기저기서 문화생산자 또는 문화생비자(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라는 용어가 퍼져나갔다.

그 당시 '문화생산자'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유는 여성을 위해(정확하게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닌 여성을 대상으로) 쏟아 붓고 있는 문화강좌들이 여성을 문화인력으로 또는 진정한 문화소비자로 생각하여 프로그램화되었다기 보다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산층여성들을 단순 문화소비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막상 문화가 중요해지고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문화향수자로서 여성은 여전히 문화소비자로 남아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문화영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여성문화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회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관련 프로그램들이 강좌 수강생들이 문화인력으로, 문화생산자로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면 문화영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9) 본 글은 전문적인 여성들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일반여성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이제 2005년 현재 시점에서 ‘여성,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창조자로’라는 이름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바꾸고자 한다. 마침 본 포럼의 주제도 <문화예술 창조활동과 젠더>라고 정해지면서 캐치프레이즈가 힘을 받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문화예술 영역에서 문화향유자, 문화소비자인 일반인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기초 단위 지자체의 목표로 설정될 정도로 일상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가 부각되고 공식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¹⁰⁾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내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고 2005년 3월 학교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공모가 있게 되면서 각양각색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왔다. 또한 200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복권기금 사업도 문화체험을 강조한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이제까지 말로는 쉽게 구사되었던 ‘일상의 문화’가 프로그램화되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과연 일상의 문화로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하는가, 라고 되묻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것인가, 를 묻게 되었다. 어쨌거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대상은 여전히 어린이, 청소년, 주부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문화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말은 누구나 많이 해 왔다.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은 여전하지만 문화감수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프로그램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10) 2003년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논의는 2003년 7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련실태조사, 의견수렴,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고, 2004년 11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문화관광고아부 예술국내에 정식으로 문화예술교육과가 설치되었으며, 2005년 2월에는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장과의 연계와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를 전담하게 되었으며, 아르떼(arte.ne.kr)라고 하는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를 구축하여 정책방향과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란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왜 문화예술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 어떤 학과공부보다 문화예술영역에서 잘 놀면 훨씬 창의적이 된다는 것이며, 창의적인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이야말로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핵심능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때 <주라기공원> 영화한편 제작이 자동차 150만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있는 예화였다.

최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주요 논의점 가운데 하나가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차이가 무엇이나하는 것이다. 포괄하여 문화예술이라 표현하지만 이제까지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대체로 예술장르를 일컬어하는 교육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등의 용어가 강조되면서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다듬기 시작하여 오면서, 많은 설명이 덧붙이지곤 하였지만 일반인의 의식에 깔려있는 문화교육은 여전히 예술장르를 교습하는 강좌로 인식되곤 하였다.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의 차이에 대해 이중한¹¹⁾은 문화교육은 당연히 예술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예술교육은 예술작품의 감상과 이해를 출발점으로 해서 예술적 장인기질의 연마를 지향하거나 예술가정신을 보다 잘 수용하는 것을 성취로 본다. 오늘날 보통사람의 문화적 창의력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의도는 '예술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현실과 비전을 생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풀이하고 있다.

김주호¹²⁾는 유네스코에서 제안되고 있는 arts education(예술교육), arts in education(예술을 통한 교육)이라는 교육개념을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교육적 성과를 내는 방향이라는 'art in education' 쪽으로 가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철학에 가깝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다.

이병준¹³⁾은 좀더 구체적으로 예술교육(art education), 미학교육(aesthetic education), 문화교육(culture education), 문화예술교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술교육은 예술이해 및 예술성 함양을 위한 교육, 예술활동에 필요한 기술교육,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미학교육은 미적인식, 미적 관계, 미적 세계, 미적인식을 통한 인간사회계몽으로, 문화교육은 예술과 과학 인간의 의사소통방법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성,

11) 이중한 정갑영 공저, [국민창의력을 위한 문화봉사], 현암사, 2003.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열림 좌담회 [문화예술교육사업을 다시 보다] (2005년 4월20일).

13) 이병준, "왜 문화예술교육인가", 건양대창의력개발연구소 주관 워샵(2005.6.30) 특강자료

문화적 세계는 아름다움(미적) 세계를 포함한 그 이상의 것, 문화교육과 미학교육/예술교육의 개념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역량 모두를 향상/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이며, 인식(해석)적 능력, 자기표현을 위한 기술적 능력, 문화 및 예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반인을 위해 제공되어 왔던 보편적으로 일컬어졌던 '문화강좌'라는 내용이 대부분 예술교육에 치우쳐왔으며, 그것도 제대로 된 예술교육보다는 기능성을 강조하는 강습위주로 흘러왔음을 인정하게 된다. 특히 일반 국민의 평균적 문화력 증진과 창의적 문화교육은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한 반성은 유네스코가 관점을 정리하면서 1995년에 발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감수적(culturally sensitive)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아예 '예술에서 창의적으로' 라는 표제를 내세웠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문화관광부는 2004년 [창의한국]을 발표하면서 분명히 하였고, 2004년 11월 예술국내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하였고, 2005년 3월 학교 영역과 사회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모사업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문화단체, 문화기관 등의 기획자 상당수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문화강좌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의 약 20~30%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2004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5년 올해도 우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적인 사례가 확산되어 가운데 전국의 문화기획자들이 '진정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운영되어야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좀더 나은 문화예술교육사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이나 라는 논의 가운데 올해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단순 예술 강좌 위주에서 문화교육에 비중을 두어 선정되었다. 이는 이미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일상의 문화가 중요해지고, 보통사람인 문화수용자의 입장에서 문화감수성과 창의성을 촉발할 수 있는 예술을 매개체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평균문화력의 증진은 보통사람, 일반대중의 창조적 능력개발을 새로운 발전과제로 전략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창의성을 인간발전의 새로운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통사람의 창조적 생활은 삶의 존재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 창조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삶과 일 모두에서 새롭고 보다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그리고 일상생활속의 문화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문화의 집과 문화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육 강좌의 수혜대상은 여성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여성회관 등에서 문화관련 교육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문화부문을 특화하기 위한 여성문화회관 설립이 지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구(군)민회관, 시민회관 등에서도 주로 문화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강좌의 수혜대상은 주로 전업주부 중심의 일반 여성들이다.

이들 문화강좌들을 여성(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강좌는 다른 곳과 별반 차이는 없고 특별히 문화영역을 특화시키거나, 문화예술교육을 염두에 두고 배려한 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인적자원 활용차원에서 수강생들을 문화자원활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개인적으로는 기량을 높이고, 여성인력 차원에서는 봉사인력의 전문화를 기하였고, 회관차원에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인력지원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일반 강좌 프로그램의 유형

여성(문화)회관과 각종 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교양강좌' '문화교육' '문화·기술교육' '문화교양교육' '기술·생활문화교육'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40~100여개의 강좌가 3개월 혹은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전국적으로 조례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강좌에 따라 수강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월1만원~2만원 내외이다. 시설로 조리실, 실습실, 어학실, 컴퓨터실, 강당, 어린이집(탁아실) 등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으며, 최근 수영장, 헬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강좌의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악기연주 및 노래: 국악기(가야금, 해금, 장구 등), 기타, 크로마하프
 만들기: 도자기, 손뜨개, 탁종이인형, 공예, 꽃꽂이, 홈패션 등
 조리: 생활요리에서부터 전문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리사 과정
 미술: 수채화, 사군자, 서예, 데생, 동양화, 서양화, 사진 등
 어학: 영어, 일어, 중국어, 한문 등
 컴퓨터관련: 홈페이지제작, 인터넷, 워드 등의 기초교육에서부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기술교육
 춤: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설장구, 한국무용, 발레
 건강관련: 수지침, 발맞사지, 생활요가 등

강좌 수가 50여개가 넘는 곳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듯 음식, 미용, 의복, 공예 부문에서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의상디자인, 헤어디자인, 피부관리 및 미용, 보석디자인, 패션, 디지털영상편집, 문화해설사 등의 강좌가 있다.

아래의 예시는 부산여성문화회관과 대전유성문화원의 문화강좌이다. 이들 기관 모두 각각 4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아래 예시인 정규반 이외에 문화봉사숙련반이라고 하여 24개 강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한국무용, 에어로빅, 전통다도, 기타, 한식, 양식요리, 컴퓨터, 한국화, 꽃집창업, 서예, 서양화, 종합홈패션, 한지공예, 생활양재, 스포츠댄스, 풍물단, 가야금, 합창단, 민요, 판소리, 단전호흡, 요가, 탁구 등이다. 문화봉사숙련반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시설, 병원 등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문화원 문화강좌와의 차이는 요리, 양재, 홈패션 등의 분야를 전국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이외 강좌는 문화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 유성문화원의 경우도 전통강좌 수가 좀더 많다는 것과 수강생들의 지적, 미적 욕구가 높은 중산층 주부들의 요구에 따른 미술읽기(서양미술사), 클래식산책(서양음악사) 등의 강좌가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외는 모든 문화관련 강좌들이 교육생들의 문화체험을 특별히 고려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여성문화회관 <2005년 정규반 운영계획>

구분	과목	정원 (명)	교육장소	교육시간
계	47과목 연159반	1,334		
전통 문화 분야 (10)	가야금	24	2층 전통관	화,목 14:00~15:50
	풍물놀이	24	1층 체육실	화,목 14:00~15:50
	서예	24	4층 미술공예실	수,금 10:00~11:50
	한복	24	4층 섬유작업실	수 13:00~16:50
	한지공예	24	4층 섬유작업실	화,목 10:00~11:50
	민요판소리	24	2층 전통관	화,목 10:00~1:50
	전통다도	24	2층 전통관	월,수 10:00~11:50
	규방공예	24	2층 전통관	월,수 14:00~15:50
	한국무용	24	1층 체육실	화,목 10:00~11:50
	사군자	24	4층 미술공예실	월,토 10:00~11:50
문화 예술 분야 (5)	기타	24	2층 음악실	화,목 10:00~11:50
	서양화	24	4층 미술공예실	화,목 10:00~11:50
	가곡교실	24	2층 음악실	화,목 14:00~15:50
	즐거운노래교실	100	3층 소극장	화 11:00~12:50
	문예창작	24	2층 음악실	월 10:00~11:50
정보화 분야 (4)	컴퓨터첫걸음(오전)	30	3층 컴퓨터실	화,목 10:00~11:50
	컴퓨터첫걸음(오후)	30	3층 컴퓨터실	화,목 14:00~15:50
	즐거운인터넷,홈페이지	30	3층 컴퓨터실	월,수 14:00~15:50
	워드,엑셀 등 자격증반	30	3층 컴퓨터실	수,금 14:00~15:50
요리 분야 (8)	한식조리사	30	3층 생활관	화,목 10:00~12:50
	중식조리사	30	3층 생활관	수,금 10:00~12:50
	일식조리사	30	3층 생활관	화,목 13:30~16:20
	양식조리사	30	3층 생활관	수,금 10:00~12:50
	복어조리사	24	3층 생활관	화,목 13:30~16:20
	잔치요리	30	3층 생활관	화,목 13:30~16:20
	제과·제빵기능사	24	3층 생활관	수,금 13:30~16:20
현대 생활 분야 (4)	꽃집창업	24	4층 미술공예실	수,금 14:00~15:50
	생활양재	24	4층 섬유작업실	화,금 14:00~15:50
	종합홈패션	24	4층 섬유작업실	월,수 10:00~11:50
어학 분야 (8)	한글첫걸음(초급)	30	4층 봉사수련실	월,수 10:00~11:50
	한글첫걸음(중급)	30	4층 봉사수련실	월,수 13:00~14:50
	영어기초	30	4층 어학실	월,수 14:00~15:50
	생활영어회화	30	4층 봉사수련실	화,금 10:00~11:50
	일어기초	30	4층 어학실	화,목 14:00~15:50
	생활일어	30	4층 어학실	화,목 10:00~11:50
	중국어(초급)	30	4층 어학실	수,금 10:00~11:50
	중국어(중급)	30	4층 어학실	수,금 12:00~13:50
레저 분야 (8)	스포츠댄스(초급)	30	2층 대강당	수 12:00~13:50
	스포츠댄스(중급)	30	2층 대강당	목 14:40~16:30
	탁구교실	24	2층 대강당	화,목 10:00~11:50
	에어로빅	24	1층 체육실	월,수,금 11:00~12:00
	단전호흡	30	1층 체육실	월,수,금 9:30~10:30
	단전호흡(50세 이상)	30	1층 체육실	월,수,금 15:00~16:00
	요가(오전)	50	2층 대강당	월,수,금 10:00~11:00
	요가(오후)	50	2층 대강당	월,수,금 10:00~11:00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강좌

구분	프로그램	강사	요일	시간	수강료
전 통 강 좌	장구장단(초)	한순복	월	12:00~14:00	15,000/월
	장구장단(중)		월	10:00~12:00	20,000/월
	경기민요	최정분	월	14:00~16:00	15,000/월
	산조춤	이현숙	월,수	11:00~13:00/15:30~17:00	20,000/월
	한문서예	이길원	월,목	14:00~16:00	20,000/월
	한국무용(흥춤,태평무)	김선영	월,목	14:00~15:30/12:30~14:00	20,000/월
	도살풀이춤	안금분	화	12:30~14:00	15,000/월
	시조	조남홍	화	14:00~16:00	무 료
	사물놀이(계속반)	안정곤	수	10:00~12:00	15,000/월
	도예	윤 숙	목	10:00~12:00	15,000/월
	가야금(청소년)	조혜형	목	20:00~21:00	20,000/월
	가야금(일반)		목	11:00~12:00	20,000/월
	판소리	고향임	목	17:00~19:00	20,000/월
	대금	이재천	목	19:00~21:00	15,000/월
	수목화	김병진	금	10:00~12:00	15,000/월
	다도	김선영	금	10:30~12:00	20,000/월
	해금(초)	이은혜	토	13:00~14:30	15,000/월
	해금(중)		토	14:30~16:00	20,000/월
	단소 A	공윤환	토	13:30~14:50	15,000/월
	단소 B			14:30~15:50	
어 학 강 좌	어머니영어교실(시작반)	안미숙	월	15:00~17:00	15,000/월
	어머니영어교실(계속반)		월	13:00~15:00	20,000/월
	한문	김용주	월,수	10:00~12:00	20,000/월
	중국어	대길요	화,토	10:00~11:30	20,000/월
	스크린 영어	박찬조	수	10:00~12:00	15,000/월
스 포 츠 강 좌	에어로빅	윤임순	월~금	09:00~10:00	20,000/월
	스포츠타니스(시작반)	최미영	화,목	11:30~12:20	15,000/월
	스포츠타니스(계속반)		화,목	10:30~11:20	20,000/월
	웰빙기체조(초)	이선주	화,금	14:00~16:00	20,000/월
	웰빙기체조(중)		수	10:00~12:00	20,000/월
	짜즈댄스	이정진	수,목	13:30~15:00/14:00~15:30	20,000/월
짜저싸이즈	이승은	목	19:00~21:00	15,000/월	
어 린 이 강 좌	유아발레	이영주	화,목	16:00~17:00	25,000/월
	어린이발레	이영주	화,목	17:00~18:00	25,000/월
	어린이도예	윤 숙	화	16:00~17:00	15,000/월
	어린이동화구연(4~6세)	박순복	토	13:00~14:00	15,000/월
	어린이동화구연(7~8세)	박순복	토	14:00~15:00	15,000/월
예 술 · 생 활 강 좌	퀼트교실	유지영	월	10:00~12:00	15,000/월
	김정선노래교실	김정선	화	10:00~11:00	10,000/월
	컴퓨터교실(시작반)	박계자	화,목	10:00~12:00	20,000/월
	컴퓨터교실(시작반)		수,금	10:00~12:00	20,000/월
	소묘와 수채화	김해숙	수	10:00~13:00	20,000/월
	미술읽기	정경애	목	10:00~12:00	20,000/월
	클래식산책	황운택	목	14:00~16:00	20,000/월
	유화	유근영	금	14:00~16:00	20,000/월
	토피어리	신소연	토	10:00~12:00	15,000/월
클래식기타교실	이화순	토	14:00~16:00	15,000/월	

나. 여성문화인력의 자원화

여성문화회관은 지역에서 여성(복지)회관 또는 여성발전센터 등과 구별되는 문화적 속성을 강화하여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 대구의 경우 오케스트라단, 합창단 등으로 전문화하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문화자원봉사 영역을 전문화하고 있다. 문화의집, 미술관, 박물관 등의 문화공간과 자원봉사센터 역시 문화영역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로 유도해내거나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여성을 문화자원인력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여성(문화)회관 등은 강좌중심의 교육이외에 다른 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교육(여성문화기획자 과정 등)을 도입하는가 하면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연계된 교육(IT/CT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화를 기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역내 문화기관과의 공조로 네트워크화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구되어야할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강조 또는 특화되어야할 부분은 문화잠재인력에 대한 여성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을 통해 앞으로 확산일로에 있게 될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도 인적자원으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분명한 목표설정은 없었지만 문화활동의 다수를 점해온 여성들의 시간적 물적 투여량을 본다면 이들 여성문화활동자들은 문화인력 창출의 가능성있는 잠재집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문화잠재집단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여성문화활동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과 여성문화를 선도해나갈 여성(문화)회관의 운영목표를 수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들어 문화기반시설에도 문화마케팅, 문화경영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종 훈련에 우선 목표를 두었다면,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문화인력 양성에 우선 목표를 두는 것으로 특화하여야 하고 여성전용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발전방향

가. 문화프로그램에 관점 도입하기

일반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강좌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사회교육, 평생학습교육 등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면서 강좌유형은 미술, 무용, 음악 등 문화장르 등의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다. 평생학습의 개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에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¹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이들 여성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강좌는 앞으로 추구되어야 할 '창의성'을 담보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여성회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운영되는 문화강좌는 50여개에서 많게는 150여개에 이른다. 이들 강좌들이 문화적 향유와 문화마인드를 새롭게 다지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다음 개개인이 어떻게 '예술이 아니고 창의성으로 가느냐'에 필요한 텍스트와 그 텍스트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지속적 보완과 증보의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강사 위주로 기능습득 또는 지식전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수강생 또는 교육생들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체험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여성(문화)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문화강좌는 당분간 크게 변화되지 않겠지만,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적 관점의 도입은 앞으로 분명 확산되긴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목적을 강조하는 의식전환 교육이 문화강좌 기획자와 문화강좌 강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인지적 교육의 도입처럼, 앞으로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문화기관 뿐 아니라, 여성(문화)회관류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시범교육프로그램 이외에 여성문화회관 등의 기존의 다양한 문화강좌를 문화예술교육의 관점으로 재편성하는 시도를 통해 창의적인 강좌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구나, 하는 점을 수강생들에게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은 문화의집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한 결과, 선정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본다. 제목은 <아줌마 뮤지컬 프로젝트 '날개를 달아드립니다'>이며 광명문화의집이 2005년 6월~9월동안 실시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기획 예시 <아줌마 뮤지컬 프로젝트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기획의도는 성인문화예술체험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고 주부 특히 아줌마에 대한 느끼는 삶에 있어 적극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뮤지컬이라는 매개를 통해 체험의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자아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과정으로 문화를 즐

14) 문화예술교육은 미적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여가교육, 매체교육, 문화적 문해교육 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교육영역들이 특정한 지향, 곧 개인의 미적, 창의적, 성찰적, 소통적 역량들을 북돋워 줌으로써 개인 자신의 발전과 성숙은 물론 사회의 문화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지향 속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은 개인의 감수성과 창의성 발굴로 집약된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교육 중장기발전방안], 2004.)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의도를 두며, 문화의집이라는 지역 문화공간이 소통의 장으로 역할하고자 기획하였다고 한다. 프로그램은 주2회 총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뮤지컬이란 장르를 우리 주변의 일상을 소재로 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수업내용은 크게 4가지로 엮 보기, 들어가기, 익혀보기, 키워보기 단계로 구성되며 모듈별 스토리텔링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뮤지컬이란 매개를 통해 문화활동의 즐거움과 배움을 동시에 찾는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서 일할 때이다.

프로그램 기획 예시 <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1998년도에 [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전 해에 [문화봉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범교육]을 해보았으니 그 틀에 맞추어 어렵지 않게 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이중한 회장님과 협의 하였다.

결론은 다시 생각하여 작성해보라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문화봉사자 교육이 아니라 '문화의집'에 적합한 문화봉사자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화의집에 대한 자료 들을 구해 알만큼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틀에 박힌 교육프로그램이 되었던 것이다.

이중한 회장님은 문화의집이라는 문화공간은 공간과 도구가 주어졌으니 도구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무엇인가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문화감수성이 도입될 수 있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문화의집에 어떠한 도구가 주어졌는지 다시 보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할 것인지 고려해보라는 말씀이셨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몇차례 시범교육을 해보았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16개 강좌로 구성되었다. 교육의 핵심은 문화의집이 갖고 있는 공간과 도구(비디오 등 영상물, 도서, 음반, 인터넷, 악기 등)를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교육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필자 뿐 아니라 참가자들이 이 교육의 취지를 지금처럼 이해하지 못하였던 때라 "교육이 좋았다, 뭔가 다르다" 는 평가는 받았지만 그 차이를 설명해 내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문화의집 문화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

- 문화의집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
 -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 @왜 문화의집인가 @문화의집에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이란
 - @지역문화센터로서의 문화의집 @문화의집 봉사자의 역할과 의미찾기 워샵
- 문화정보 제공을 위한 기자재 활용법
 - @비디오 등 영상자료 활용의 예 @도서활용의 예 @음반자료 활용의 예 @인터넷 활용의 예
- 문화프로그램 워샵
 - @도서프로그램 만들기, 영상 프로그램 만들기, 음악프로그램 만들기
- 생활 속에서의 문화감수성 개발
 - @일상생활과 대중매체 @문화감수성을 개발하는 문화교육 찾아보기
- 다른 문화봉사 영역 찾아가보기
 - @갤러리 @박물관 @사랑의문화봉사단

나.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공공문화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이라 함은 주로 학예직, 사서, 기술전문직 등 자격(증)과 관련된 전문직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의집, 문화원 등의 지역문화공간이나 문화단체, 여성문화회관, 여성단체의 운영실무자는 자격(증)이 아닌 문화예술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지닌 경력자를 전문인력으로 언급하곤 한다.

최근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가 국회에 상정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은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인증하는 자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진행·분석·평가·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로 이들 문화예술관련 공간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요구되는 인력은 관리운영인력, 보조근무인력, 자원봉사인력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관리운영인력은 주로 설립/운영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정직원인 경우가 많으며, 보조근무인력은 공공근로나 공익근무 형태로 관계하는 인력이다. 이 두 유형이 공식적으로 임금을 받으며 종사하는 인력이라면, 자원봉사자는 무급으로 운영에 봉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강좌)운영상 강사가 있는데 이들도 전문자원봉사자라고는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봉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교육인력으로 구분하여 추가하도록 한다.

문화관광부는 문화공간을 크게 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나누고 있다. 지역문화복지시설 분류에 들어가는 공간은 시군구민회관, 문화의집, 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시설 등이다. 이 가운데 시군구민회관과 문화의집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책임자 90%가 공무원들이다. 그외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은 주로 사회복지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지닌 책임자가 있는 곳에 위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복지시설 분류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지역민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복지공간에 좀더 포함시켜보면 여성(문화)회관, 문화원, 대학의 사회문화센터 혹은 평생교육원 등 사회문화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동단위로 조성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이같은 사회교육기능으로 서서히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인력에 대한 자격증 등의 전문성 부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정비하고 강화하여야할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공간의 전문인력이 지녀야할 핵심능력의 관건은 문화교육에 대한 철학과 작은 공연과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문화기획력, 그리고 문화시설간의 교류능력이다. 이같은 능력은 실제로 문화욕구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그들의 활동기회에 따라 다양하게 인력화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는 점과 실제로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에서 전문인력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공립문화기반시설이 이제까지의 전문적 기능 외에 사회적 서비스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인력유형도 달라지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의 경우 도서대여업무 뿐 아니라 공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고객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박물관의 경우는 박물관대학 운영 등 사회교육 서비스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점, 미술관 역시 미술관 기능의 다양화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경우는 책과 관련한 문화강좌, 축제행사를 기획하고 도서동아리 모임을 만들고 유치하는 작업 등은 기존의 사서업무와는 판이하지만 이러한 문화기획 능력을 지닌 사서가 있는 곳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의 경우도 유행처럼 박물관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역사문화적 욕구를 수용해내고 프로그램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아야하며, 이러한 일들은 기존의 사학이나 고고학 전공의 학술, 발굴, 전시중심의 전문학예사 업무와는 달라서,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기획력 있는 교육전문가

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술관의 경우는 호암미술관이 1996년부터 에듀케이터educator 제도를 두어 도슨트 교육을 비롯하여 미술관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어,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원 같은 공공문화시설은 문화기획자 또는 문화교육실무자를 전문인력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접하고 있는 문화관련 실무자들이 대부분 여성들이다. 문화단체, 문화기관의 국장, 실장, 간사, 공공도서관의 관장과 사서, 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간사, 문화의집 관장 그리고 여성관련 기관과 단체의 실무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자원봉사자들이 여성이다. 문화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을 특정화시켜 논의에 포함한다는 것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있지만 그동안 문화영역에서 교육생으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오거나 문화와 관련한 공부를 꾸준히 해 온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문화활동 현장을 파악해보고자 2003년 여름 전국 20여개 기관 실무자와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한 기관은 여성회관, 여성단체,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자원봉사기관 등이었다. 인터뷰의 대상기관의 담당자는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성들이었고 바로 그들이 문화전문인력이었다.

인터뷰대상기관은 여성(문화)회관, 여성단체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체로 전업주부들이다. 이들 여성들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은 주로 문화교육(강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화인력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많은 여성들(특히 전업주부)이 단순한 문화수용자 또는 문화교육수강자에서 출발하여 지역의 문화자원봉사자로 또는 문화예술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교육수강자에서 전문교육강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 1993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문화활동 현황]을 조사할 때와 비교하여 10년 사이에 문화관련 기관들이 상당수 늘어났고, 문화교육수강자들도 일부 중산층 전업주부에서 계층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연령층의 범위도 넓어지고 문화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20여개 기관 인터뷰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영역의 전문인력은 정규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사회교육(강좌), 문화기획자 과정 등을 통해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며, 문화인력의 범주를 거시적으로 보아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화인

력의 이동가능성 확대를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문화 전문인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가-문화행정가-문화기획자라는 세 틀에 문화자원봉사자-문화수용자(교육생)이라는 틀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인력의 확대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확대가능성은 여성을 문화소비자에서 문화생산자, 나아가 문화창조자로 인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함께 해나가면서 문화수용자(교육생), 문화자원봉사자(문화동아리) 영역의 인력이 좀 더 효과적인 문화교육(문화자원봉사자 교육, 문화기획자 과정 등)을 받는다면 문화기획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머로 발돋움할 수 있음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점점 문화공간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여 이들 여성문화인력을 자원화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확산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제안해 본다.

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행과제

(생각 바꾸기)¹⁵⁾

- 스스로 보고 느끼고 배우는 문화감수성이야말로 가장 개성적인 상상력의 기초가 된다는 믿음을 갖는다.
- 문화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문화산업시장에 나서지 않으면 사양화되는 산업시대 장치산업제품으로는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자신의 느낌으로 문화감수성을 익히고 증진시키며,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의 현장, 문화의 내부, 문화의 질 속에서 깨우침이 있도록 하는 문화교육의 틀을 세워야 한다.
- 소박한 생활취미교실과 아무런 분별력을 가지지 않은 초보적 부실프로그램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요구에 비해 시간과 정력과 비용의 낭비일 수 있다.
- 변화하는 세계와 노동과 삶의 조건에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감수성의 증진을 통해 창조력 배양을 추구하는 새 문화교육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 새 문화교육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내용 뿐 아니라 교육담당자를 확보해내야 한다.
- 문화교육 구조의 조립과 구성 자체가 새로운 직종의 창출일 수 있다.
- 새 일자리 그 자체를 문화영역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관점에 서야 한다.
- 음악: 악보하나 더 익히보다는 연주회장에서 자기만의 느낌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 미술: 무엇을 잘 그리기 보다는 전시회장에서 사람들의 미술적 감각이 어떻게 변

15) 이중한, "창조적 상상력으로서의 문화교육", [국민창의력을 위한 문화봉사], 현암사, 2003.

하고 있는지 분별해내는 능력이 우선이다.

- 읽기능력: 예술 장르별 깊이있는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텍스트를 찾아본다.
- 연극의 관점으로 연극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클래식 음악의 관점으로 클래식 음악회를 조직하게 된다면 이는 예술 프로그램이 될 수는 있으나 문화향수를 위한 문화감수성 프로그램은 되지 않는다.

(문화예술적 표현 및 활동 지원)

- 문화공간은 일상적 문화를 개척해나가는 곳이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역량을 높여가는 곳임을 주지한다.
- 지역민, 수강생의 새로운 요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한다(이용자 조사 및 대화를 통해)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위해 기획자 또는 운영실무자, 강사, 수강생들과 함께 논의구조를 갖도록 한다.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감수성 증진에 바탕을 둔 것인지 반드시 염두에 둔다.
-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도 자신의 관심사와 맞는 한두 개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한다.
- 끊임없는 새로운 문화적 비전으로 프로그램의 틀에 변화를 준다.

(문화인적 자원 발굴 및 양성)

- 문화시설 이용자를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생산자, 문화창조자로 대한다
- 문화욕구가 높은 이용자는 문화봉사자로 활동하도록 적극 권유한다.
- 문화봉사자를 기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곧 문화자원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해준다.
- 회원제, 운영위원회 등을 두어 주민참여를 높인다.

(지역내 문화교류)

-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다른 문화공간실무자들과의 정기모임을 갖고 프로그램 교류를 갖는다. 경쟁적인 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망을 형성한다.
- 사회문화기관, 복지시설, 여성단체와 연계를 갖는다

토론

창조적인 여성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모색

토론주제 I: 여성문화예술활동과 문화정책

토론주제 II: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비교

토론주제 III: 여성문화예술활동의 특성과 사회적 위상

토론주제 1

여성문화예술활동과 문화정책

문화관광부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

김성일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

I. 양성평등 문화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 정책목표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과제)
 - 여성의 문화적 표현, 향유의 확대
 - 여성의 문화예술 창조 역량 강화
- ▶ **양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문화예술 정책 수립**
 - 문화 정책 각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관점이 통합된 정책 과제 발굴
 - 문화예술 정책 수립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 ▶ **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인식의 확산**

□ 추진방향

- 문화예술 분야의 성인지 기초연구를 통한 여성 문화예술 실태 파악,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등 **문화예술정책의 성 주류화 노력** 강화
- 효과적인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기반 조성**
- 미래의 대표적 고부가가치 사업인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여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수 및 자기표현 기회 확대** 지원

II. 2003년~2005년 주요성과 및 추진 현황

□ 양성평등 문화정책 추진 및 부내 인식확산

-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소속 여성문화TF팀 운영('03.10~'04.12)

- 여성문화정책 과제개발을 위한 여성 문화정책 소위 운영 및 여성문화포럼 개최
- 창의한국 문화비전 27대 추진 과제에 「양성평등문화환경조성」 장기비전 제시 ('04)
- 새로운 정책 영역 개발 및 시범사업 실시: 공공 문화시설 내 여성화장실 비율 확대와 보육 서비스 강화
- 부내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행사 기획 : 여성문화 관련 의식 설문조사와 특강 및 행복한 파문 만들기 행사 추진 등('04)

□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04)
- 심층성별영향평가 실시
 -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성별영향분석평가('04)
 -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분석평가('05)
- ※ 자체평가 : 외국인 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05)
- 여성 문화 종합실태조사: 여성의 문화예술 향수 실태 및 여성 문화예술인 활동에 관한 연구('05)

□ 관광 분야 등 새로운 영역의 성인지 사업 개발

- 여성문화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04)
 - 지역 여성 문화자원의 공공 문화 자원화 논의
- 여성과 여행, 관광 작품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05)
- 장애여성 여행 프로젝트('05) 등

□ 여성 문화예술인 위상 제고

-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과정에서 여성 문화인물 발굴 노력
 - 2005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에 강경애, 강정일당, 임윤지당 등 3명 선정

III. 2006년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사업 계획

□ 문화예술 영역의 성별 실태 파악

- 여성 문화 종합실태조사 : 문화산업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자체 평가 실시

□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

- 여성정책포럼 운영 : 일반인, 전문가 및 여성 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참여
- 양성평등 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 성희롱 예방교육,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자체 성인지 교육 실시

□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사업의 지역 균형발전 기반 구축

-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연계 워크숍
 - 지역의 특색에 맞는 양성 평등 문화정책 아젠다 개발
 - 중앙과 지방의 양성평등 문화정책 연계방안 마련 및 지역 민·관 협력체계 구축

IV. 2006년 문화부 예산(안) 중 주요 성인지 예산

(단위 : 억)

사업명	2006 예산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비고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4.8	○ 문화산업분야 여성문화 종합실태조사 ○ 양성평등 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 연계 워크숍	기획총괄 담당관실	국고
국제문화정책 지원(UNDP)	4	○ 아시아 문화행정 인력연수 ○ 아시아 여성문화정책 개발 및 세미나, 여성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국제문화 협력과	"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4	○ 사회적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탈 성매매 여성 등(여성부 협조) ○ 다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국제결혼이주여성(법무부 협조) 등	문화예술 교육과	"
오페라 하우스 여성 화장실 확충	7	○ 오페라 하우스 내 자유 소극장 및 로비 1,2,3층 남녀 화장실 12개소 공사	예술 정책과	"
서울여성영화제 지원	3	○ 국제 영화제 육성 사업	영상산업 진흥과	"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	0.12	○ 전국여성백일장 행사 개최	예술 정책과	문화예술 진흥기금
여자축구활성화	13	○ 전국 초중고 및 대학 여자축구팀 운영비, 대회참가보조비 지원	체육 정책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명	2006 예산안	주요내용	담당 부서	비고
여자축구권역리그	2	○ 전국5개권역중 2개 시범권역 선정, 5개 연령대회 조직, 연중 리그방식 운영	"	"
전국여성 생활축구대회	0.3	○ 문화부장관배 전국여성생활축구대회 개최	"	"
전국어머니 종합생활체육대회	0.75	○ 11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	"
전국어머니 탁구대회	0.4	○ 어머니부, 혼합복식부, 어린이부 등 생활 탁구대회 지원	"	"
여성생활체육강좌	3.48	○ 성인여성대상 체력향상 강좌 운영 등	"	"
여성스포츠 교류지원	3	○ 각종 여성 스포츠 국제교류 지원	"	"
총합	45.85			

문화에 대한 통념을 여성으로 넘어서기

전효관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문화의 민주화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문화의 탈차별적인 효과도 계속될 것이다. 빌레트 공원과 그 공원의 ‘거대한 바자회’ 식의 프로그램이 조르슈 풍피두 센터보다 미래를 더 잘 대변한다”(이브 미쇼, [예술의 위기], 동문선, 1999, 241-242쪽).

1. 문화민주주의 시대의 문화 개념

인용한 글은 최근에 한 워크숍에서 인용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활력이 우리가 지금 숙고해야 할 문화의 개념에 가깝다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 말하자면 일상에 반응하고 그 과정에서 삶을 동기화하는 실천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두어진 예술보다 더 예술적이고 미학적일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문화 개념이 정책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소수의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지탱하는 문화권의 차원으로 문화 논의가 급진전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문화와 예술이 문화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의제를 구체화하는 매개로 재설정된 것이다. 예술이 그 자체로서 이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쉽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실천으로 재해석된 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화도시 만들기, 문화교육 활성화 등이 과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랐다. 이 매혹적인 과제는 문화와 일상이 엮이고, 문화와 삶이 통합되는 공동체의 전망을 과제로 포착했다. 문화를 향수하고 문화 생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삶의 근거리에서 일상을 문화적 환경으로 구성하는 문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승인하는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게 하는 개념적 혁신을 이룬 것이다. 문화는 장르 중심과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삶의 차원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여성과 문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선의를 배반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일상에서 삶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문화적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실천의 빈곤, 지역과 마을에서 삶을 고양할 수 있는 공동의 경험을 매개할 주체의 미형성이라는 문제는 문화사회의 전망에 난관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실천과 주체가 없는 문화라는 단어의 과잉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문화가 자신을 인식하고 치유해가고 삶을 엮는 생산적인 단어가 아니라 위로부터 강제되는 또 다른 피곤한 단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마도 여성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문제상황 속에서 일 것이다.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의미와 소통의 장소와 실천이 생성되는 곳에 여성들이 존재한다. 지역의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어린이 도서관 운동에서, 대안적 학습 현장을 만드는 현장에서 여성들이 발견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다. 여성들은 삶의 자취와 흔적을 보존하고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기록하는 주체, 예술이라는 기존의 권위적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삶의 일상성과 장소성에 연결하는 주체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성에 주목하고 개별적 삶의 맥락을 읽는 주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지금 갈구하듯이 삶, 학습, 지역, 생태가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 삶과 장소를 구상하려고 한다면, 단선적 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궤적이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소통 공간을 설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고 개별적인 주체들의 감성과 감수성을 읽어내고 현실을 구성하는 곤란함에 대한 성찰과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생성과 대화의 공간을 매개하는 주체로 여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3. 공감하고 저항하기

그렇다면 여성문화의 존재방식 또한 변해야 한다. 여성문화라는 쟁점에서 여성 주체의 문화 예술 활동이라는 낡은 문화 개념, 여성 대상의 기존의 장르 개념을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말하자면 기존의 문화 개념과 여성문화 개념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과 맥락을 해체하고 새로운 표현의 방식과 실천의 양식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생성적 관계를 만드는 과정은 당연히 결코 짧지 않은 실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실천 과정은 문화의 일상적 차원을 복원하기 위한 공감과 저항의 과정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 시대적 변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실천 주체의 역할을 다시 사고할 수 있다면 여성과 문화의 연관은 지금보다 훨씬 풍부해질 것이다.

토론주제 II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비교

남성과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여건의 차이 : 여성에 대한 지원 과연 필요한가?

노명우 (미디어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일반적 의미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항상 '그렇다'이다. 양성평등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국가의 중요 정책 목표이어야 한다. 성적 불평등 구조가 지배하고 있는 한 특정성(Gender)에 대한 지원은 철학적으로도 올바르고, 이념적으로도 온당하며 정책적으로도 시급한 과제이다.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당'하다.

하지만 메타적으로 정당한 여성지원 정책의 목표를 메타적 정당성의 담론에 근거하여 도출할 때 패러독스가 출현한다. 왜냐하면 정책적 목표의 대상인 '현실'은 메타적 정당성의 담론의 영역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모습'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보다 복잡적이며 그 요인들 사이의 관계는 '구체적' 국면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기에 정책적 목표의 대상인 '현실'은 보다 구체적이다.

여성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성과 다른 변수가 겹쳐지며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Gender만을 변수로 설정했을 때의 즉각적인 '예'와 달리 주저하는 '예.....'이다. 왜냐하면 Gender 변수만이 고려될 때의 여성에 대한 지원과 달리 Gender변수와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겹쳐지게 될 경우 지원정책의 필요성은 Gender 변수와 문화예술활동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한 유기체가 유기체로서 기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질대사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1차적 필요성'이다. 하지만 유기체가 인간처럼 무리를 이루어 살고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인간이라는 유기체는 '1차적 필요성' 충족에 의해서는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 유기체의 완성은 '2차적 필요성'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

여성지원 정책은 '2차적 필요성'의 충족을 통한 사회의 완성은 아니다. 여성지원 정책은 오히려 '1차적 필요성'에 해당된다. 여성지원정책은 바로 '1차적 필요성'의 영역이기에 정당하지만, 문화예술 여성지원 정책의 경우 보다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지원'은 '1차적 필요성'의 영역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2차적 필요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1차적 필요성'의 영역이라면, 문화예술은 '2차적 필요성'의 영역이다. 1차적 필요성과 2차적 필요성의 위계의 관계는 아니다. 1차적 필요성이 출발점이라면 2차적 필요성은 도달점이자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적 필요성과 2차적 필요성을 위계적 관계로 파악하는 담론도 있다. 1차적 필요성의 영역인 경제는 2차적 필요성의 영역인 문화예술보다 위계의 피라미드에서 정점에 위치하며, 2차적 필요성에 '불과'한 문화예술은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좋다는 '경제중심주의적 담론'은 1차적 필요성과 2차적 필요성을 위계의 관계, 혹은 양자택일의 관계로 허구화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경제중심주의적 담론이 지배하는 한 문화예술 정책은 도미점의 도미가 아니라 도미점 위에 얹혀 있는 고명에 불과하다. 경제중심주의적 담론은 2차적 필요성을 끊임없이 위계화 한다. 이러한 경제중심주의적 담론의 또 다른 모습은 남성중심주의이다. 남성중심주의 담론에서 여성은 1차적 필요성이 아니라 위계화된 2차적 필요성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치부된다. 경제중심주의는 문화예술활동을 위계적 2차화 하며, 남성중심주의는 여성을 위계적 2차화 한다.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은 위계적 2차화의 담론이 중첩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위계적 2차화의 구조가 재생산되는 한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2중화된 위계구조화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개입'이 그렇듯이, 메타적 정당성에 근거한 정당한 모든 개입이 항상 정당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에 여성의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개입'하되 '어떻게'와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는가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여성은 문화예술활동의 소비자이자 창작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기획자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연행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전문 문화예술인일수도 있고 단순 문화예술 애호가일 수도 있다. 게다가 여성 또한 '경제중심주의자'일 수도 있다. 그 모든 여성의 역할 속에서 양성 불평등은 평균적인 양성 불평등의 강도로 혹은 그보다 강하게 문화예술활동 속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에 여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강화 확대 되어야 하지만, 여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은 Gender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단일 목표만으로 부족하다. 여성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중적인 위계적 2차화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책이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역설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즉각적으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는 주저하며 '예....'라 대답할 수밖에 없다.

여성과 문화의 정치세력화

엄태석 (서원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은 성의 어느 한 편만의 생각은 아닌 듯싶다. 여성의 남성 대비 취업률이 65%에 이르고 대학진학률이 95%에 이른 지금도 여성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사와 보육, 그리고 자녀교육의 책임자이다. 게다가 사회는 여성들을 불평등한 고용시장에 마구 내몰고 있다. 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심각한 남녀간의 임금격차, 그리고 직장 내 각종 불평등이 여성을 항상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여성학자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기왕의 가사노동에 한 가지 일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회에 나가 남성으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일하느니 집안에서 여왕처럼 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로 나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학자의 자괴적 주장을 쉽사리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평등 지수는 세계 58개국 중 54위 수준으로,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중국(33위), 일본(38위)에 처지고, 방글라데시(39위), 말레이시아(40위), 태국(44위), 인도네시아(46위)보다도 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 5월 16일 발표된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여성의 권리: 글로벌 남녀불평등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남녀가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으로 7점 만점에 5.53의 평점을 받았다.

상위권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휩쓸었으며, 최하위권 국가는 인도(53위), 파키스탄(56위), 터키(57위), 이집트(58위)로 평가됐다. 유럽연합(EU) 국가로서는 영국(8위)과 독일(9위) 등이 10위권에 포함됐으며, 뉴질랜드(6위)와 호주(10위), 캐나다(7위)도 높은 평점을 받았고,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보다 뒤지는 17위에 그쳤다.

한국의 평점은 7점 만점에 3.18로 부문별로는 보건 및 복지가 27위로 그나마 가장 높았으며, 경제활동 참여도 34위, 교육활동 성취도 48위, 경제활동 기회 55위로 평가됐으며 정치적 권리는 56위로 평가항목 중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OECD 30개국과 28개 신흥시장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WEF는 국제기구 자료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이 마련한 5개 평가항목에 따라 분석했다고 밝혔다. 자체설문조사는 지난 해 전 세계 1백4개 기업의 9천여명의 비즈니스맨을 상대로 노동시장 관행, 교육 시스템, 사회 제반 인프라 등 비즈니스 환경을 물어 작성됐다.

5개 평가항목은 ▲경제활동 참여도: 남성과 비교해 고용률과 임금 비율 ▲경제활동 기회: 일단 고용됐다면, 모성 휴가, 보육의 정부 제공 정도 ▲정치적 권리: 남성과 비교해 의사 결정 기구에서의 참여율 ▲교육적 성취: 여성의 교육기관 등록율 ▲ 보건과 복지: 그 사회 전반적인 복지서비스에 비교해 출산 관련 복지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지위가 아시아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이 1위, 말레이시아가 2위, 그리고 중국이 3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13위로 꼴찌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조사 결과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성의 평등지수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한적도는 이슬람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는 과장하여 부지기수다.

이상의 조사결과들에서 여성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치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매우 부정적이거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하지만 조금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음을 쉽사리 이해하게 된다. 정치는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이익을 분배하며 사회를 경영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정치를 혐오해 왔던 것은 우리가 언론 등을 통해 접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정치의 어두운 면, 추잡스러운 면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정치에 대한 정의로서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를 이와 같이 정의한다면, 자신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장에 참여해야 하며, 보다 강한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에 여성국회의원들이 39명이나 선출되었다. 16대 국회에서 16명에 불과했던 여성의원들이 무려 배가 넘게 당선되었으며,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13%에 이르게 되었다.

여성의원들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많아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였다. 가장 보수적인 정치권에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끊임없는 설득하고 주장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들의 노력으로 할당제라는 제도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여성이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또 여성의 권익신장과 정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라면 현재 광역의원의 6.3%, 기초의원의 2.2%라는 미미한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내년 선거에서는 10% 이상이 될 수 있는 정치관련법의 개정이 이들 여성단체들과 여성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치세력화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먼저 “세력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들의 관심은 일반적으로 개발과 복지에 주어진다. 부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이 주어지며, 문화와 예술과 같은 부문은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밖에 두거나 최소한의 관심만을 표명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창조적 예술활동을 위한 기금의 조성, 교육기관의 설치, 예술활동 지원 등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문화의 연대 및 이의 세력화가 매우 중요하다. 설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여 문화계를 향해, 국가와 정치권을 향해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밖에서 외칠 뿐만 아니라, 성인지적이며 문화적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여 파이의 분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성”, “문화”, “창조”, “예술”

어느 단어 하나 만만해 보이는 것이 없다.

“가시밭길에도 행복은 있네”라는 흘러간 가요의 가사도 있지만, 이 네 가지를 안고 가는 여성의 길이 포도가 아님은 분명한 듯하다. 같이 걸을 친구, 손을 잡아줄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토론주제 III

여성문화예술활동의 특성과 사회적 위상

여성문화정책에서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 - 질의와 토론

김현숙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

“여성문화정책에서 여성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과 성격”에 관해 토론하려면,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실태와 정책지원」이라는 발표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여성 문화예술인의 규모와 그 성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의 제도적 기반 속에서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토론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I. 여성문화예술인의 규모와 성격, 그리고 위상

1. 여성 문화예술인의 규모와 성격

1)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여성 문화예술인은 얼마나 되는가?

(1) 여성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서 전문 종사자로 상정한 여성 문화예술인의 모집단이 얼마나 되는가?

- 모집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협회 등 전문 종사자 단체 가입자가 기준인가?

아니면 문화예술 활동 수입이 생계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인가?

(2) 본 조사에서 적용한 역할별, 영역(장르)별로 여성 문화예술인 모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 표본추출에 활용한 유의할당의 기준이 되는 변수가 역할, 영역(장르)인가?
아니면 연령, 지역, 결혼 유무, 자녀 유무인가?
- 조사설계에서 계획한 역할별, 영역(장르)별 조사표본 수와 실제 조사와 분석에
서 사용한 표본 구성에 차이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 문화예술인(전문 종사자) 중 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 (1) 문화예술인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 (2) 각 역할별, 영역(장르)별 여성의 비율은?
 - 특정 역할, 특정 영역(장르)별로 성별화 되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양상과 정도는 어떤가?

2. 여성 문화예술인의 위상

(문항 26의 1순위 응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뒤쳐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남성 중심적으로 굳어진 제도적 기반'이라는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다.)

1) 문화예술계의 제도적 기반 속에서 여성 문화예술인의 위상은 어떤 수준인가?

- (1) 협회 등 전문 종사자 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문화예술인
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의장(대표), 임원, 이사, 주요 위원회의 위원 등의 여성 비율은?

- (2) 협회 등 전문 종사자 단체를 통한 정책 기금 지원에서 여성이 수혜한 비중은?

2) 문화예술계의 제도적 기반 중 남성 중심으로 굳어져서 성차별의 효과를 발 휘하고, 여성 문화예술인의 위상을 낮추고 있는 제도적 기반이란 무엇인가?

일부의 주요 결과만 PPT 자료로 제시된 “여성 문화활동 종합실태조사”의 최종 보
고서가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되어 정책 과제를 추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요 결
과 보고 내용 중 몇 가지 문제들을 질의하고자 한다.

II. 여성 문화활동 종합실태조사 주요 결과보고(PPT 자료) 내용 중 질의 사항

1) 문화예술 활동 소득에 있어서의 차이

- 발표문 p.5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03)의 문화예술활동 관련 수입(<표3>)과 ppt에서 제시한 문화예술활동 소득(설문지의 DQ13-2) 사이에 차이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조사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 문화예술인의 조작적 정의가 다른 것인가?
아니면 표본추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가?

2) 조사표본 중 '주 활동 분야' 변수의 범주 중 기획/제작은 35명, 스텝은 57명에 불과한데 이 범주에 대한 양적 분석이 유의미한가?

3) 여성이 남성보다 뒤쳐진다/아니다(설문지 문항 25)에 대한 결과 ppt 자료 중 파이그래프의 결과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막대그래프의 결과가 옳은 것인가?

4) 여성이 남성보다 뒤쳐지는 이유(설문지 문항26의 1순위)의 n=1000이 옳은가?

- 이 문항은 설문지 문항 25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뒤쳐지지 않는다'에 응답한 응답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들에게만 질문한 문항인데 n=1000 이라는 것은 이상하다.

여성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장애요인에 대한 몇가지 견해와 제언

변재란 (순천향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1. 여성 인력 활용의 장애 요인에 대한 통계들

1-1. 우먼 코리아 보고서:

맥킨지가 '비전코리아 제 5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정리한 '우먼 코리아 보고서'(2001)는 '21세기 여성인력양성과 활용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 바 있다. 여성 인력 활용의 어느 한 부분만을 논하지 않고 인력의 양성 단계부터 노동 시장 경험, 단절, 재진입에 이르는 전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종합적인 문제 분석을 통해 해결책에 이르고자한 이 보고서는 지금/여기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의 장애 요인을 1) 성 역할의 편견을 심는 교육 2)특정 분야에 편중된 인력 양성 3)직장 내 성차별적인 인사제도 및 관행 4) 미흡한 보육 지원 5) 비효율적 재취업 훈련 기관 및 비효율적 직업 안정 기관을 지적하고 특히, 6)일반인의 의식 부족,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여 특정직무, 직책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의 경제 개발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 노동이 남성을 대체한다는 제로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유감스러우면서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 이런 여성 인력 활용의 장애 요인은 류정아 박사의 분석이 잘 보여주듯이 여성문화예술 창조 활동의 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 하다.

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04)

먼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의 자료에 따른 통계들을 보면 여남 대비 통계에서 계열별 학위 취득자에서, 고학력 여성비율은 늘어가는데 특히 예체능계와 사범계의 학위

취득자중 여성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가장 왕성하게 자기계발을 해야 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것은 여성들이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 취업자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를 보면, 2003년 여성취업자 중 고졸, 대졸이상, 초졸이하, 중졸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보다 고졸자의 취업률이 높은 것을 통해서 현재 한국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질의 특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성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를 보면, 2003년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65.5%이지만 여성의 임시직 비율은 남성의 거의 두배로 나타났다.

2002년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은 '육아부담',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불평등한 근로여건'등의 순서로 확인되고 있다. 연령별 육아부담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다음이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부담과 30대의 낮은 취업률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된다는 데도 일치점을 보인다.

1-3.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03)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우선 문화예술인들의 취업 상태에서도 여성 예술인은 남성 예술인보다 임시고용직 종사자가 두 배 많으며, 안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여성의 비율은 과반수를 넘는 65%대에 이르고 있으나,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예술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사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로서 창조력을 발휘해야 할 나이에 가정에 묶이는 경우가 많으며 일단 현장에서 물러난 여성예술가가 다시 예술계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성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이러한 여성예술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문화적 성취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애사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창조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적인 여성예술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연극의 발표 횟수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표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 그리고 영화인의 활동영역에서도 남녀의 활동영역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기술, 감독, 제작기획에는 남성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시나리오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정책 효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우세한 부분을 더 장려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부분에 여성우대 정책이나 장려 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지에 대해서 정책효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여성문화예술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문화 예술교육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구분해 보면 대학교수비율에서 현저히 낮고, 강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여성은 연출이나 기획 등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의 총괄과 관련된 부분의 종사 비율이 낮았다는 사실과 함께 문화예술활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영화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기술스텝, 감독, 제작 기획은 남성이 연기와 시나리오는 여성의 비율이 높다.)

영화라는 특정 장르에서의 여성 현황은 2002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여성영화인모임의 '2002년 여성영화인 현황 파악 및 정책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영화계의 상황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여성들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이해에 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4. 2002년 여성영화인 현황 파악 및 정책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

이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여성이 영화계에서 일하기 좋은 이유를 타 직장에 비해 영화계가 상대적으로 성차별적 관행이나 의식이 적고, 능력위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미래에 비전을 지닐 수 있고 섬세한 감성과 꼼꼼한 성격은 영화일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한다.

이에 비해 여성이 영화계에서 일하기 부적합한 면은 타 직종에 비해 여성영화인을 위한 복지정책(어린이집 시설, 산전산후 휴가, 생리휴가 등)이 없기 때문임을 대부분의 여성영화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낮은 급여와 불편한 근로조건 등, 영화계의 현황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 가중된 측면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다.

영화계 업무는 타직종에 비해 몇 가지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한 작업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고 한치의 빈틈이나 실수가 있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작업의 지연이 있으므로 어떤 분야보다도 치열하고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장기간의 지방로케이션의 경우 현장스텝 모두가 촬영기간 동안 함께 숙식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비현장 업무관련자(제작 기획 홍보 마케팅 등) 또한 진행에 앞서 새로운 문화적 생산물을 창조하기까지의 밤낮없는 준비와 홍보, 작품 완성이후의 원활한 배급까지 치열한 시간다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체력의 문제나 최소한의 복지조차 보상받지 못할 때 그것을 평생직장으로 삼기가 사실상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비현장 영화분야의 여성인력들의 경우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도 극히 극소수만이 받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육아를 위한 보조금이나, 육아시설의 혜택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미혼 여성인력은 결혼 후에도 영화분야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었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제안하고 있다. 주위에서 육아부담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다수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영화계 전체의 문제, 나아가 영화계에 종사하는 여성전체의 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육아부담으로 일을 그만 둔 여성의 목격비율이 현장의 경우 58%, 비현장은 90%로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장이 비현장에 비해 낮은 이유는 현장일의 속성상 출퇴근이라든지, 시간준수의 개념 자체가 희박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결혼생활과 양립하기 어렵고 따라서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든지 또는 결혼을 하면 일을 포기함으로써 여전히 미혼여성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 여성영화인모임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여성인력들이 국가 및 사회적 차원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설하여 좀더 활동적으로 여성인력들이 주체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청회를 연 바 있다.('영화인 육아지원을 위한 사회적 방안의 모색' 2003) 육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적 해결을 선호하고(현장, 비현장 모두 82%),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다면 현장 79%, 비현장 77%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을 감안 한 것이었다. 설문분석 가운데 기혼자들은 남편과 가사를 분담하는 경향이었지만 육아의 경우 부모님께 맡기거나 보모를 고용하는 듯 육아 문제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육아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방법으로는 어린이집 설치를 비롯 육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복지시설 확충과 정책의 마련을 지적했으며, 역시 근무환경의 개선과 사회의식의 변화, 남성들의 육아에 대한 적극적 태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영화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영화인을 위한 재교육 또는 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취업과 경력관리의 체계적 시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 다음 근로시간 준수, 처우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이 지적되었다. 특히 기혼여성영화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교정과 가족의 이해 등의 의견도 있었다.

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에 언급한 많은 통계와 이에 대한 평가들은 사실 여성 문화예술인의 현 상황을 거의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성문화활동 종합 실태조사'(2005)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제안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사항이다.

첫째, 여성예술가에 대한 기금할당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접근이다. 영화 분야의 경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는 여성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하지만 여성관련 행사가 아닌 행사나 지원 프로그램에서 좀더 직접적인 여성문화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은 미비하다.

둘째, 일반여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를 마련.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공공의 예술문화 활동의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서 예술문화활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개개인의 재능과 관심을 구체적이고 발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춘아 사무국장의 지적처럼 문화영역의 전문인력이 정규교육을 통해서보다 사회교육, 문화기획자 과정을 통해서 훨씬 빠르게 확산되어가고 있다면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새 틀 짜기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진흥법과 연계하여 성 인지적인 관점에 입각한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 심층적인 고민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예술계의 (고학력) 여성전문 인력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과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될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성문화정책의 기초적인 토대구축과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는 가운데 문화관광부 2004년 예산 중에서 여성관련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모두 16억 9천만 원으로, 이 중 여성문화정책과 관련된 것으로는 여성불자대회, 여성영화제지원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체육관련 지원이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자의 두 개의 사업도 여성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라는 것은 다소 지나친 표현이지만 성인지적 여성문화정책의 마스터플랜에 입각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넷째, 아쉽게도 류정아 박사도 인정하고 있듯이 문화영역이 다원화됨에 따라 기존의 음악, 미술, 문학 등의 분류틀에서 제외되었거나 또는 복합적인 새로운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인력도 새로이 개발된 범주로 포함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장르중심이 아닌 역할이나 기능별 범주에 따른 조사분석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방송 통신 등 미디어 분야) 다시 말해서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성문화예술인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맞는 육아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단계에서 30대 이상 여성문화예술인들이 육아부담을 덜고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계발하여 문화예술 생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단위의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제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 사회활동 비율과 영역의 확대, 사회활동의 질적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날로 커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문화적 욕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문화정책, 즉 여성문화정책은 현재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비하는 필수 단계라는 지적은 앞서의 많은 통계 자료들에 대한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가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현단계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다.